



**조현민 한진 사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한진 조현민 사장(오른쪽)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한진에 따르면 조 사장은 GS건설 허윤홍 대표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다음 참여자로 안다르 공성아 대표를 추천했다. /한진



**GS건설, 싱가포르에 종합 철도 시험센터 준공**  
GS건설은 싱가포르 서부에 종합 철도 시험센터(SRTC)를 준공하고,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 교통청(LTA), GS건설 조성한 인프라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현지에서 지난 28일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 조성한 인프라사업본부장(가운데)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

**씨티은행, 김경미 부행장 선임**

한국씨티은행은 김경미 리스크관리본부장(전무·사진)을 부행장으로 선임한다고 1일 밝혔다. 김경미 부행장은 지난 1990년 씨티은행에 입행 후 기업금융 신용 리스크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부문 글로벌 헤드를 맡아 폭넓은 글로벌 경력을 쌓았다. 지난 2021년에는 한국씨티은행의 위험관리책임자(CRO)로 선임돼 리스크 관리를 총괄했으며, 국내외 관계 법령 및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벤츠코리아 29일 '메르세데스 트로피' 예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골프 대회 '메르세데스 트로피 2025(MercedesTrophy 2025)'의 국내 지역 예선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지역 예선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 11곳이 지역별 예선을 각각 주관한다. 이를 통해 국내 내선 진출자 약 90명이 선발되며 오는 8월 '메르세데스 트로피 내셔널 파이널'을 통해 한국 대표 3인이 결정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인사**

-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김민하 △수석전문관 승진 △금융안전과 김영민
- ◆**한국가스공사** ◇상임이사 임명 △마케팅본부장 이문희 △전략기획처장 최수진 △언론부장 김준 △시설운영안전부장 광필성 △수소안전부장 박정규

**부음**

▲송완기씨 별세. 송정연(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종원(대신증권 상무)씨 부친상. 장필은(세파유환회사 대표이사)씨 장인상 = 1일 오전 11시 50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02-2072-2010

**현대차, 'R1·셔클' 기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강화**

(ST1 개조 특별교통차량·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플랫폼)

**화성시 협력... 5개월간 이동 지원 "지자체와 실질적인 솔루션 검증"**

현대차는 1일 경기 화성 동탄 1신도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개조 차량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플랫폼 '셔클(SHUCLE)'로 '셔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장애인 대상 호출택시 차량은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의 뒷문으로 탑승하고, 3열에 위치한 채로 이동해야 해 불편한 승차감과 동승자와의 분리를 피할 수 없었다.

이에 현대차는 신체장애가 있는 승객도 동일하게 2열 도어로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자사 새시캡 'ST1'을 개조한 특별교통수단 'R1'과 셔클 플랫폼을 활용에 이날부터 5개



거동이 불편한 승객이 현대차 차량의 옆문으로 탑승하는 모습.

월간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R1은 기존 ST1에 ▲저상화 플랫폼 ▲휠체어 옆문 승차가 가능한 사이드 엔트리 ▲휠체어 사용자용 안전벨트 ▲가변형 시트 등을 적용했다. 국내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옆

문으로 탑승해 동승자와 나란히 앉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은 R1이 유일하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셔클 플랫폼 이용 앱에 국내 최초로 '전자 바우처' 기능을 탑재했다. 전자 바우처 기능으로

운영사는 영수증 증빙 절차 등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용자는 유선 통화를 통한 호출 외 앱을 통한 차량 호출도 가능해진다. 셔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증명을 받은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1일 2회까지 동승자 2인을 포함해 무료로 탑승 및 이동이 가능하다. 최초 1회에 한해 셔클 앱을 통한 인증이 필요하다.

김수영 현대차 모빌리티사업실 상무는 "이번 실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산불피해 지역 '노란우산' 신속 지원**

"기업 정상화 도움 되길"

중소기업중앙회가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과 경북, 울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소재 노란우산 가입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등이다.



이들 지역 소재 '노란우산' 가입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확인서나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제출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을 받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부금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금 납부도 6개월간 유예한다. 중소기업공제금 가입자의 경

우 신청 시 부금 납부를 6개월 유예하며 피해 기업에는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조치가 피해기업의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재난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복리이

자, 압류금지, 소득공제, 복지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아울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5월 두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해당 기간에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입한 신규가입자 전원에게 네이비페이 3만 원 쿠폰을 지급한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이 지난 3월 누적 가입자 300만 명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다양한 복지혜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전자 "‘찐팬’ 앰버서더 도전하세요"**

최대 180만원 상당 혜택 제공

LG전자가 오는 14일까지 '찐팬' 크리에이터 그룹 'LG전자 앰버서더' 2기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앰버서더는 LG전자 제품과 서비스 이용 경험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더 나은 삶(Better Life)'의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는 제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공개된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서 팔로

워·구독자 500명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동기와 콘텐츠 퀄리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0명을 선발한다.

LG전자 제품 리뷰 커뮤니티 '재미(jammy)'에서 지원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된다.

선정된 앰버서더는 콘텐츠 제작 지원금과 제품, LGE닷컴 포인트 등 최대 18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혜민 기자 hyem@

**청호나이스, 지기원 대표이사 취임**

"라이프케어 기업 위상 확고히"

청호나이스 지기원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했다.

청호나이스는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지기원 대표(사진)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대표는 청호나이스에 20여년 근무하며 전략 중심형 조직을 구축하고 신규채널을 성공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지대표는 취임사에서 ▲신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내수 기반 강화 ▲글로벌 시장 성장 가속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기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출시하고 성장시켜 정수기와 환경가전 업체를 넘어선 라이프케어 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롯데, '서울모빌리티쇼' 첫 참가**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 주제 전시

롯데가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롯데는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를 주제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을 구성한다. 롯데 전시관

은 ▲모빌리티 기술존 ▲자율주행존 ▲수소 밸류체인존 등 총 3개 구역으로 나뉜다.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인프라셀 등 롯데화학군과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와 자율주행 등 그룹 모빌리티 사업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노비즈협회, 30일 '모닝포럼' 개최**

이노비즈협회가 이달부터 CEO 포럼을 다시 시작하며 이노비즈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노비즈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호텔에서 '제90회 이노비즈 모닝포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2009년부터 17년간 이어져 온 이노비즈 모닝포럼은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자를 위한 대표적인 조찬 강연 프로그램으로, 매회 100여 명이

상이 참석해 최신 이슈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포럼은 4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총 5회 진행하며 ▲글로벌 무역질서 ▲AI 혁신 ▲인구 변화 ▲조직 변화 대응 ▲삶의 철학 등 폭넓은 주제를 통해 경영자의 시야 확장과 전략적 사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